

# ‘임실산타축제’ 역대급 대성공 임신지원금 100만원 지원

### 축제 기간 31만8500여명 방문... 전년 대비 방문객 3배 증가·매출액 8억3300만원

2024 임실산타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같이치우는 대성공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된 임실산타축제가 전국적으로 31만85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최대 기록이었던 11만 명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임실산타축제가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겨울 축제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매출액도 진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 임실N치즈와 대형음식점, 입점부스, 푸드트럭, 쌀매장 등의 총매출액은 8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4억4500만원 보다 87%나 증가했다.

개막 첫날에는 하얀 눈이 내린 가운데 3만5000여명이 찾았고, 이어 둘째 날에는 10만여명이 방문해 수많은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방송보도와 인스타그램, 맘카페 등의 SNS 인소문을 타고 무려 12만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제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와 축제장 진입도로 일대에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성탄절에는 임실군청과 축제장 주변, 임실을 일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수많은 차로 가득 메워지기도 했다.

군은 셔틀버스와 대형주차장 등을 풀가동하고, 전문교통위원을 배치해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교통질서와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유제품 20% 할인 행사에 힘입어 각종 유제품은 팔리나게 팔리고, 특히 임실치즈가 가득 들어간 치즈붕어빵 부스는 축제 기간 긴 줄이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대형음식부스에서는 시래깃국, 다양



2024 임실산타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같이치우는 대성공을 거뒀다.

한 분식, 다슬기수제미, 치즈돈까스, 짜장면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식사 만족도를 높였다.

축제장 일대를 에워싼 먹거리 부스에서는 활육수수와 어묵, 닭꼬치, 호떡 등 겨울 먹거리 간식들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 선보인 대형눈썰매장은 길이 50m의 슬로프로 내려오는 짜릿함을 맞출 수 있어 아이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1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인기 만점 스킬 넘치는 눈썰매를 즐기러 온 아이들의 긴 대기줄로 진풍경을 보였다.

또한 빙어 잡기 체험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뜰채로 빙어 잡기를 즐기고, 잡은 빙어를 바로 튀겨주는 빙어튀김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맛보며, 특색 있는 이벤트로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치즈 컬링과 썰린지 에어버문스, 가족 트리 만들기, 가족 케이크 만들기, 군밤 굽기 등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고, 축제장 곳곳에서 열리는 산타 선물 이벤트 또한 재미를 더했다.

또한 특설무대와 분수광장에서는 관현악 공연, 팝페라, 산타퍼레이드 플래시몹, 마술,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산타퍼레이드 경연 대회는 사전공모한 10개 팀이 참여해 팀별 개성을 담은 분장과 기량을 맘껏 발휘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잠이원 입구 터널부터 시작되는 제각각 다양한 장식들로 꾸며진 트리과 갖가지 포토존마다 추억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테마파크의 랜드마크인 치즈캐슬 앞 대형트리 주변에서도 연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심 민 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임실산타축제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올해 축제 미미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사계절 축제 도시 임실로써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새해부터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새해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임신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임신부 114명을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2023년 79명에서 올해 88명으로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지난 13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들이다.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울러, 군은 임신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이후에는 출산 장려금과 함께 출산 축하 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지역 임신부들을 위해서는 이송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만의 특색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소식 등

### 순창군 산림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순창군 산림조합이 최근 연말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순창군에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순창군 산림조합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으로서, 2013년부터 매년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역에 기탁하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정생 조합장을 대신해 설동찬 이사가 자리를 함께하며, "이번 성금이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 연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감면 정책을 1년 더 이어가는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총 105종 1,432대의 모든 임대 농업기계에,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원시는 이번 연장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내년 1월 한 달간 남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남원시가 2025년 새해에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한 달간 남원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원시가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국내외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최근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으로, 확대 대상은 카드·모바일형 남원사랑상품권이다.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할인율을 10%에서 15%로 구제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류형 상품권은 종전과 같이 10% 할인, 최대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혜택을 통하여 시민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명절 선수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점동시장을 찾으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안전문화대상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 남원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안전문화 확산 기여 공로

남원시는 2024년 행안부에서 주최한 안전문화대상에서 행안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1억원의 인센티브(특교세)를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우수단체와 유공자에 시상하는 안전분야 최고의 상이며, 남원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

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캠페인 활성화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선정 등 2024년 안전관리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65일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계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선정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됐다.

이번 선도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전 북자치도와 선정된 6개 군(임실, 무주, 장수, 고창, 진안, 부안)이 지난 26일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번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선정 협약을 통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체

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유치 투자설명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군은 운안면 옥정호 일원에 총사업비 2,289억원이 투입되며, 220,000㎡에 불빛 케이블카 조성, 국사봉 머물다원터, 나래 전망타워, 운암 정류장 등을 조성해 옥정호, 나래산, 국사봉 등 산악과 호수가 결합된 천혜의 산악관광지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